



나비축제 행사장 전경

/합평군

합평 나비대축제 31만명 '대성황' 입장료 수익 9억 '티켓파워' 입증

제21회 합평나비대축제가 여전한 '티켓파워'를 과시한 채 폐막했다. 8일 합평군에 따르면,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합평나비대축제가 관람객들의 호평 속 지난 6일 폐막식을 끝으로 1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나비축제는 잦은 비와 타 축제 기간과 겹치는 악재에도 지난해 보다 4만여 명 늘어난 31만 666명의 총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KTX 합평역 정차, 승차권과 결합한 축제 입장권 할인 판매 전략이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평이다.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군민 무료입장 탓에 지난 2017년 기록했던 최고 입장료 수입(9억 82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해 보다 1억 5000여만 원 늘어난 9억 5500여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9억 원의 축제개최비용을 상회하는 입장료 수입을 달성해 전국의 몇 안 되는 흑자축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축제장 내 각종 판매장 수입도 화려하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난해보다 1억 5000여만 원 늘어난 4억 25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각종 판매장 매출과 부스 임대료 수입 등을 합하면 축제장 내에서만 10억 1100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 8년 연속(13회~21회, 16회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 10억 원 돌파라는 진기록을 낳았다. '나비와 합

개하는 봄날의 여행'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나비축제에서는 총 24종 21만 마리의 나비는 물론, 33종 42만 본의 다양한 초화류, 60여 종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체험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유채꽃, 무릇, 꽃양귀비 등 대형색색의 봄꽃이 만발한 합평천 수변길과 엑스포공원 일대에서는 떠나가는 봄이 아쉬운 듯 꽃향기에 취한 상춘객들의 탄성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축제 주인공인 화려한 나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나비·곤충생태관은 축제기간 내내 봄비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올해 처음 야외에서 선보인 황금박쥐 조형물은 90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증명하듯,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나비와 함께 축제 최고 인기스타에 올랐다.

40여 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역시 인기 만점이었다.

매 축제마다 최고 인기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야외 나비날리기'는 올해도 장사진을 이뤘으며 '미꾸라지 잡기', '앵무새 모이주기', 직접 찢을 짜고 우유를 시음하는 '도심 속 목장 나들이'도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속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다.

이유행 합평군수는 "이뤄낸 성과보다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더욱 집중해 내년 나비축제가 더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합평=나성주 기자 nsj3983@



군산시, 1.3兆 예산 확보 팔걸어

국가예산 중앙부처 공략 나서 326개 사업 1.3兆 확보 목표 쟁점사업 시장이 직접 요청도

군산시가 326개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1조 3777억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략에 나섰다.

시는 8일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가 이날 밝힌 내년도 시의 주요 건의사업은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체(인증)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35억원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50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280억원이다. 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 80억원 ▲새만금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70억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69억원도 국가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청도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60억원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체 제조시설 구축 20억



강임준 군산시장

원 ▲수제맥주청주 특화거리 조성 15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25억 5천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속 도시 조성 1억 5천만원(총사업비 60억)도 함께 요청한다.

이처럼 군산시가 목표로 삼은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신규사업 53건, 계속사업 273건 등 총 326건에 1조 3777억원이다.

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강임준 시장과 해당부처 간부공무원이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동향 검토와 사업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5월말까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부처 설득과 대응논리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쟁점사업들에 대해서는 10일과 13일, 16일 강시장이 직접 해당 부처에 방문해 설명하고 지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공조하고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다.

강시장은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처에서 미온적·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대응논리를 갖춰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봉재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여수산단 환경관리, 민·관 머리 맞댄다

전라남도, 민·관 거버넌스 가동 시스템·법령·제도 등 개선키로

전라남도가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후속 조치로,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를 가동했다.

전라남도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수산단에 대한 시스템과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지난 7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는 여수산단지 지역 주민 대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수



전남도청 전경

참여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기업체 공장장,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대기·건강관리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안연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과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 박봉순 전라

남도 환경산림국장,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회의는 ▲전라남도 경과보고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결 수렴 및 확정 ▲거버넌스 기본의제 4가지 설명 ▲자가측정 제도 설명 ▲의제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는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전남 13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전국 최초 기획수사에 나서 측정값 축소 조작, 미측정 성적서 발행 등 235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배출사업장과 4개 측정대행업체(전남 3·광주 1)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지난 4월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남=봉재영 기자

인천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보호관' 8명 위촉

인천시는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가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민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침해구제신청을 하면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j@

전주시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청년들 주거부담 줄여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정도만 받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대학교 인근 지역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24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와 도배 등 새 단장을 마친 뒤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봉재영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9일 (木) 음력: 4월 5일

수도권 날씨 23~1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9/24, 동두천 9/24, 가평 7/24, 파주 8/22, 서울 11/23, 양평 8/24, 인천 12/19, 수원 11/23, 용인 11/23, 평택 9/23, 백령도 10/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